

좁지만 편안하고... 남루하지만 아름다운 곳...



서울 서촌 대오서점



경기 수원 행궁동 골목거리



원주 미로예술시장 골목미술관

프랑스 파리와 일본 도쿄에 가는 관광객들 중 샹젤리제나 오토데산도 등 낯익고 화려한 명품 거리보다 좁고 비좁은 남루한 뒷골목 둘러보기를 더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처음 그 도시에 갔을 때는 당연히 명품 거리부터 찾았지만 우연히 접어든 골목에서 풍요로움을 덮고도 남는 매력을 발견한 뒤부터는 오히려 골목을 가고 싶어 거리 찾기를 정했다. 골목에 가야 그 도시의 표정,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고나 할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도 골목길에 주목한 듯하다. "사람 향기 물씬 나는 골목길을 찾아서"라는 테마 아래 11월에 가볼 만한 여섯 곳을 선정, 발표했다.

▲ 느낌의 미학을 깨닫는 경북골목 서촌(서울 종로구 효자로·지하문로·필운대로)

'서촌'은 경북골목 서쪽을 일컫는다. 경북골목 서민인 영추문을 지나 청와대까지 골짜기 이어지는 효자로 원편, 즉 경북골목과 인왕산 사이 청운동, 효자동, 창성동, 통의동, 신교동, 통인동, 육인동, 체부동, 누상동, 누하동, 사직동 일대를 말한다.

서촌에 살았던 사람 중 화가 겸재 정선, 정치가이자 서예가 추사 김정희, 시인 이상·윤동주, 화가 박노수·이중섭 등 문화인이 많은 것이 특별하다. 이 가운데 일부의 집터와 옛집이 지금도 서촌에 있다.

대로에서 한 블록만 들어가도 미로 같은 골목 사이로 낮은 한옥과 다세대 주택이 이어지고, 개성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 소품 가게가 즐비하다.

서쪽은 싹틔움처럼 퍼져 나간 골목을 따라 오래된 시간 속 풍경이 감성을 자극하고, 동쪽은 미술관과 갤러리가 많아 아트 투어를 즐기기에 좋다.

▲ 수원역의 역사, 인정이 흐르는 행궁동 골목(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경기 수원시 행궁동은 조선 제22대 정조가 세운 수원 화성(華城) 일대의 장안동, 신평동, 북수동, 남창동, 매향동,

서촌 골목·경북골목 서쪽 미술관·갤러리 많아 아트 투어 즐기기에 좋아

원주 미로예술시장·귀여운 물건이 가득한 가게 등 인상적인 장소 곳곳에

남수동, 지수동 등 12개 법정동을 일컫는 이름이다.

220여 년 전 축성될 당시부터 불과 수심 년 전까지 행궁동은 수원에서 가장 변화한 곳이었다.

그러나 1997년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이 엄격히 규제된 탓에 시간이 멈춘 듯 쇠락했다.

이런 사실을 안타까워한 주민, 시민 단체, 예술가들이 뜻을 모아 행궁동 곳곳에 벽화를 그리면서 골목은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지금은 화성만큼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 명소가 떠올랐다.

화성을 구경하다 살짝 벗어나 행궁동 골목에 들어서면 벽화 마을, 공방 거리, 수원 통닭 거리, 지동시장 등이 펼쳐지며 불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을 잔뜩 풀어놓는다. 행궁동 골목은 싹틔움처럼 이어지며 수원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 미로 같이 더욱 호기심 자극하는 원주 미로예술시장(강원 원주시 중앙시장길)

미로예술시장은 낮고 인적이 드문 원주중앙시장 2층 상가가 좁은 예술가의 손길로 목은 때를 벗어 탄생했다. 이름처럼 미로 같은 골목이 특징이다.

여심을 자극하는 귀여운 물건이 가득한 가게, 젊은이가 좋아할 만한 주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방, 벽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 골목 미술관 등 인상적인 장소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늦가을 원주를 제대로 느끼는 데는 단풍 계곡이 아름다운 치악산 구룡사 금강소나무숲 길, 문화와 데이트를 즐기는

연세대 원주캠퍼스 길, 대하 소설 '토지'를 집필한 박경리(1926~2008) 선생을 기리는 박경리문학공원 등이 제격이다.

한지로 생활 소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원주한지테마파크, 건강에 좋은 발효 초콜릿으로 조물조물 체험을 즐기는 초컬릿 하우스 등은 자녀 동반 가족에게 추천할 만하다.

▲ 100년을 역사를 품은 대전 원도심 여행(대전 중구 중앙로)

대흥동, 선화동, 은평동, 중앙동 일대는 대전광역시의 100년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곳이자 과거 대전의 중심지다. 흔히 '대전 원도심'이라 불린다.

그 중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과 대흥동 일대는 대전 원도심 여행의 중심이 된다.

지난 80년간 충청남도청으로 사용된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은 등록문화재 18호(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다.

아름다운 근대 문화유산이 그대로 남은 곳인 동시에 대전의 역사가 면면히 흐르는 곳이다.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대흥동 일대에서 휴식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여행자의 성지가 된 카페 '도시여행자'를 비롯해 문화와 예술이 결합한 카페, 가볍게 둘러볼 수 있는 갤러리와 공방이 즐비하다.

소제동 철도 관사촌에 가면 일제강점기 건물과 그곳에서 공존하는 이들의 삶을 볼 수 있어 시간이 멈춘 듯하다.

메타세쿼이아 숲이 아름다운 장태산 자연휴양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한밭 수목원 등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

▲ 길에서 향기가 나네, 감포 해국길(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8길)

경주시 감포공설시장 건너편에 자리한 해국길은 옛 골목의 정취를 간직한 길이다. 1920년대 개항 이후 일본인 이주 어촌이 형성된 곳으로 당시 가장 변화한 거리였다고 한다. 일본 어민이 살던 '다물은집'을 비롯해 적산 가옥이 여러 채 남아있으며, 옛 창고와 우물, 목욕탕 건물 등이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600m 정도로 길지 않지만, 이름처럼 벽마다 그려진 해국을 보며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해국길에서 나오면 감포항 북쪽 절벽에 자리한 송대말등대에 올라갔다 문무대왕릉까지 바다 드라이브를 즐기며 감은사지를 보고, 경주 시내를 여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도 좋다.

신라 별궁 터인 동궁과 월지, 단풍이 은은한 분황사, 한옥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내는 경주 교촌마을 등에서 가을 정취를 느껴보자. 북어회, 교리 김밥, 우렁 김밥, 유부 쫄면 등이 여행자의 입을 즐겁게 한다.

▲ 자연도 좋지만 문화와 사람이 있어 더 아름다운 순천마을 여행(전남 순천시 조곡동)

아무리 순천시가 '대한민국 생태 여행 1번지'라 해도 오로지 자연을 보고 돌아간다면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문화와 사람이 어우러지며 조성된 마을이 있어서다. 조곡동 철도 문화 마을은 80년이 넘는 철도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다.

순천제일대 옆 남제골 벽화 마을에서는 순천시의 과거와 현재를 엿볼 수 있다. 낙안읍성 민속 마을에서는 600여 년 전 선조들이 숨결이 서려 더욱 포근하게 느껴지는 돌담을 만난다.

순천은 이 가을 더없이 황홀하게 변신한다. 화려한 갈대밭을 보여주는 순천만 습지, 형형색색 꽃이 만발한 순천만 국가 정원,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야생차를 마시며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드는 선암사 등 갈길을 끄는 곳이 가득하다. 매주 금·토요일 신나는 야시장도 열린다. /뉴시스



대전 소재동 철도 관사촌



경북 경주 감포 해국길



순천 조곡동 철도문화마을

2016

전북

노래
자랑

및 경연대회



11월 20일
전주 한옥마을
대강당

- ▶ 주최: 전주매일, 환경일보사
- ▶ 접수: 11월 18일
- ▶ 예선: 11월 19일
- ▶ 후원: 전북도청, 전주시청
- ▶ 문의: 010-2131-0448(금병찬 환경신문본부장)

